

[서평]

풍요로운 사회의 빈곤 문제에 대한
한 사회학자의 시선:
John Iceland의
『Poverty in America』에 대한 서평

구인회
(서울대)

최근 비우량 주택대출로 인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하면서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세계 경제를 선도하던 미국의 금융산업이 세계의 골칫거리로 되었고 이와 함께 한 시대를 풍미하던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질서도 퇴각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금융위기는 미국의 부와 영화의 취약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새롭고 인상적이지만, 미국의 빈곤과 그늘진 모습은 이미 적지 않은 사람에게 어렵풋하게나마 알려져 있었다.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빈곤선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2003년의 미국의 빈곤율은 12.5%로서 3천6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 미국의 빈곤율은 1959년에 22.4%에 달하였으나 1973년에는 11.1%로 감소하였다. Robert Lampman이나 James Tobin 등 60년대 대빈곤전쟁(War on Poverty) 프로그램의 입안을 주도한 미국의 학자들은 1970년대에는 미국의 빈곤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적인 예측을 하였다. 그리고 60년대를 거치며 빈곤과의 전쟁에서 상당한 정도의 진보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70년대 중반

이후로 진보는 멈추었고 1990년대에 장기의 호경기를 겪은 이후에도 미국의 빈곤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Iceland, 2006).

비슷한 발전수준을 보이는 서구 선진국가와 비교하면 미국의 빈곤 문제의 심각성은 더 잘 드러난다. 1990년대 중반 시점에서 미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을 다른 10개 서구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이들 나라들 국민소득의 평균치보다 30% 이상 높아, 미국은 룩셈버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빈곤선 소득을 기준으로 미국과 이들 나라들의 빈곤정도를 비교하면, 미국의 절대빈곤율은 호주와 영국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각 나라 중 위소득의 40%를 빈곤선 소득으로 하여 상대적 빈곤율을 비교하면 미국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 영국의 두 배, 프랑스의 세 배의 빈곤율을 보인다.

미국 University of Maryland 사회학과의 John Iceland 교수는 『Poverty in America』에서 이러한 미국 빈곤 문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특히 John Iceland의 연구는 경제학자들이 주도하여 온 빈곤 연구를 사회학적 시각에서 조망하고 체계적인 이론적 설명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간 미국에서의 빈곤 연구는 경제학적 접근이 주류를 차지하였다. 물론 사회학적 연구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가령 80년대 후반 시카고대학에 근무하던 사회학자 William Julius Wilson(1987)의 『The Truly Disadvantaged』는 빈곤문제에 대한 기념비적 연구로서 높이 평가되었다. Wilson은 미국 빈곤 증가의 주요 원인이 복지의존성과 그로 인한 흑인사회의 문화적 일탈에 있다는 Charles Murray(1984)의 『Losing Ground』의 보수적 주장을 흑인 게토사회의 빈곤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성공적으로 반박하였다.

Wilson은 미국 흑인 사회에 문화적 일탈현상이 심각하고 가족해체, 마약, 범죄, 복지의존성 등의 특징을 갖는 하위계급(underclass)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일부 흑인 사회의 일탈 현상은 탈산업화 등 흑인사회를 둘러싼 경제여건의 변화, 이로 인한 취업기회 제한과 무직자(jobless) 증가, 게토로의 빈곤의 지역적 집중 등이 중첩되어 나타난 구조적 변화의 결과이지 그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 흑인 사회의 빈곤

문제의 주된 원인을 경제구조의 변화에서 찾는 그의 주장은 인종차별을 강조하는 흑인민권운동의 전통적 시각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비판을 받기도 하였지만, 결국에는 미국 사회과학계에서 폭넓게 수용되는 견해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중요한 사회학적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빈곤연구는 경제학자가 지배하는 연구영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빈곤 연구의 주된 패러다임은 경제학적인 시각에 지배된 것이었다. 많은 연구가 빈곤의 수준과 추이를 개인적, 가족적 특성에 기초하여 설명하는 실증분석에 집중되었다. John Iceland가 지적하듯이, 미국 내 빈곤연구는 사람들의 경제적 지위를 설명할 때 교육수준이나 가족배경 등 개인적 특성 요인을 강조하는 신고전파 경제학 접근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졌다고도 할 수 있다. 빈곤수준이나 변화에 작용하는 사회구조적 원인들에 대한 관심은 매우 미약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학 편향의 연구동향은 사회학적 접근이 지배하는 유럽에서의 빈곤 연구와는 매우 상이한 것으로 미국 사회 내의 빈곤문제에 대한 보수화된 담론구조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미국 내 사회과학적 빈곤 연구의 이러한 특성이 보수적인 담론의 지배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한 원인으로 작용한 면도 있다. 그간 미국 내 빈곤연구에서 사회학적 접근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 대부분은 가족구조, 지역사회, 인종, 성 등 사회학적 관심에 부합하는 한정된 세부 주제 영역에서 빈곤을 연구한 것이었다. John Iceland는 빈곤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과거 연구와 다르고, 이를 통해 빈곤 문제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의 대안적 프레임을 보여주는 의의가 있다.

John Iceland의 사회학자로서의 시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빈곤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이다. 그는 빈곤을 개인적 특성의 반영으로 보는 경제학적 시각과 선을 긋는다. 빈곤을 사회계층화(social stratification)의 산물로 보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체제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자 한다. 사회계층화는 불평등과 빈곤을 낳는 사회적, 경제적 기구의 집합을 의미한다. John Iceland는 Karl Marx와 Max Weber로부터 계급(class), 지위집단(status group), 정당(party)의 세 개념을 도출하여 계층화의 차원을 확대한

다. 그리고 계급과 관련된 경제적 과정들은 시장체제로 포괄하고, 지위집단은 상이한 집단들의 상이한 성취결과를 초래하는 사회적 요인들로, 정당은 정책 요인으로 전환하여 계층화를 설명하는 틀을 구성한다.

John Iceland에 따르면, 경제적 과정은 경제성장과 경제 불평등의 두 가지 방식으로 빈곤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경제 성장은 평균 생활수준의 상승이나 하락을 초래한다. 경제성장은 노동공급과 인적, 물적 자본 투자, 기술 향상의 합수로 볼 수 있으면 경제성장은 빈곤과 부정적인 관계를 갖는다. 다음으로 경제 불평등은 소득의 분배에 영향을 미친다. 시장체제는 사람들의 자본축적능력에 기초를 두고 있고 이러한 자본축적은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대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불평등을 초래하게 된다. 산업화와 같은 경제적 위기와 재편 또한 경제적 불평등과 광범위한 빈곤을 낳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초반을 경과하며 경제성장은 정체하고 불평등은 증가하게 된다. 이 시기 이후의 불평등 증가는 저숙련 근로자에 대한 수요 감소를 초래한 경제구조의 변화가 작용한 것으로 본다. 여기에는 탈산업화, 기술 변화, 국제화, 노동조합운동의 쇠락의 4가지 요인이 관련되어 있다.

John Iceland에 따르면, 빈곤의 수준이 경제적 과정에 의해 결정된다면 누가 빈곤의 지위로 떨어지는가는 사회(지위) 집단 사이의 계층화에 의해 결정된다. 현대 사회에서 주요 지위집단은 민족(ethnicity), 성(gender)과 계급(class)적 귀속이 교차하여 결정된다. 지위집단 사이의 계층화는 사회집단이 자원이나 기회에 대한 다른 집단의 접근을 제한하여 자신들의 보상을 극대화하려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사회적, 경제적 재화나 기구의 독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재산이나 특정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해서만 접근성을 제공하는 배제 장치를 통해서 작동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질 높은 교육은 부유한 가구만이 향유할 수 있고,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다시 다른 좋은 기회들이 제공되는 과정을 통해 집단의 계층화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계층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사회에서는 빈곤을 완화하는 것이 어렵다.

John Iceland에 따르면 미국 사회에서는 인종이나 민족, 성에 따른 계층화가 특정 집단의 기회를 차단하고 이들 집단의 빈곤을 증가시키는 기제로 작용

하였지만, 그 계층화의 정도는 20세기 후반을 거치면서 뚜렷하게 감소하였다고 한다. John Iceland는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연구를 주목한다.

William Julius Wilson은 노동시장에서 흑인과 백인 사이의 전통적인 관계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여 이제는 경제적인 계급 지위가 성공의 주된 결정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Glenn Loury는 1965년 이래로 '계약에서의 차별(discrimination in contract)'은 크게 감소하였지만, '접촉에서의 차별(discrimination in contact)'은 더욱 광범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접촉에서의 차별이란 사회적 관계에서 개인을 인종에 따라 처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또한 개인의 자원 획득과 경제적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Douglas Massey는 흑인과 백인 사이의 거주분리(segregation)가 고용, 교육 등에서 흑인의 경제적 기회를 제약하고 빈곤을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가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도 경험적 근거가 약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미국에서 1968년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55% 더 높은 빈곤율을 보였다. 빈곤율 차이는 1978년에는 72%로 확대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47%로 감소된다. 그리고 2000년에는 여성 빈곤율이 12.5%로서 남성 빈곤율 9.9%보다 2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빈곤에 취약한 지위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남성과 비교해 여성의 빈곤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여성이 높은 빈곤 확률을 보이는 것은 우선, 여성이 남성에 비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이 적기 때문이며, 또 편부모가장이 여성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성의 낮은 경제적 지위는 사회에서 권력의 분배가 불평등하게 이루어진 데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과 가정이나 교육체계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시장 진입 이전의 성차별이나 편견이 그 메카니즘으로 작동하여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낮아진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여성의 고용과 근로소득 증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1980년대 초반에는 남성과 비교한 여성의 빈곤위험이 감소하였다. 여성의 빈곤율이 높은 것에는 편부모가구의 증가 요인 또한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편모들은 아동 양육과 경제적 부양의 이중적

부담을 지고 또 외벌이를 통해 가족부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빈곤 위협을 갖게 된다. 그러나 미국에서 여성 취업과 임금의 증가로 1990년대 들어서서는 편모가구의 빈곤율이 감소하게 된다.

미국의 광범위한 빈곤 문제의 원인 규명에 착수한 사회학자에게 제기되는 또 하나의 기본적인 문제는 빈곤의 진정한 의미를 규명하는 것이다. 빈곤을 경제적인 결핍으로 정의할 때 절대적 빈곤(absolute poverty)과 상대적 빈곤(relative poverty)의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

절대적인 빈곤이란 시간, 공간을 넘어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욕구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필요 식비로부터 도출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빈곤선을 절대빈곤선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미국정부의 빈곤선은 1960년대 중반에 채택된 이래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가치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조정되어 빈곤 측정의 공식적인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절대빈곤 개념은 현실 정책만이 아니라 학술연구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그간 미국 내 빈곤 연구에서는 절대적 빈곤의 시각이 주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절대적 빈곤과는 달리 상대적 빈곤 접근에서는 빈곤은 본질적으로 '상대적인 혹은 비교적인 의미에서의' 경제적 결핍(comparative economic deprivation)이다. 사회학적 시각에서는 인간은 관계 속에 존재하는 사회적 존재로서 규정되고, 빈곤을 가르는 기준은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 수준을 반영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John Iceland가 상대적인 빈곤 개념을 더욱 선호하는 것은 사회학자로서의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보인다. 빈곤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설정될 수 없는 관계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John Iceland는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하는 것의 존재를 부정하는 순수 상대빈곤 개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민감성을 보여준다. "사회의 대다수가 두 대의 고급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승용차 한대를 가진 사람을 빈곤층으로 분류할 수는 없지 않은가?" John Iceland는 빈곤측정에 내포되어 있는 사회적 측면과 상대성을 인정하되, 기본적인 욕구로 표현되는 빈곤의 절대적

속성을 수용하는 중간적인 시각에 찬성한다. 즉 절대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욕구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그 욕구의 내용과 수준은 사회의 발전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빈곤에 대한 준상대적(quasi-relative) 시각은 John Iceland의 독창적인 견해는 아니다. 1990년대 중반 미국 국립과학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s)이 제시한 제안이고, 더 일찍이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Amartya Sen이 선구적으로 제기한 견해이기도 하였다. John Iceland는 이러한 준상대적 빈곤 시각을 이론적 논의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미국 빈곤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과 원인 진단에 적용함으로써 한 걸음 나간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John Iceland는 빈곤을 경제적인 차원에 국한된 소득빈곤(income poverty)의 의미로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등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인 분석의 흐름을 자신의 논의에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Adam Smith가 제기하였듯이 빈곤은 사회활동에 대한 정상적인 참여를 제약하는 상태로 이해될 수 있고,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빈곤을 소득의 결핍상태로 보는 접근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이다. 즉 사회활동의 정상적 참여에는 물질적 자원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자원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빈곤을 경제적인 차원으로 협소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협소한 소득빈곤 시각은 빈곤을 소득이라는 결과의 분배 측면에서 이해하도록 하여 다양한 기회 분배의 측면을 놓치게 하는 경향도 있다. 또 빈곤에 대한 대책에서도 소득이전 프로그램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낳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빈곤을 경제적 차원으로 한정하는 시각이 빈곤을 경제, 사회, 정치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계층화의 산물로 보는 John Iceland 자신의 이론과도 단절되는 측면이 있음도 지적될 필요가 있다.

John Iceland가 『Poverty in America』에서 던지고 있는 핵심적인 질문은 하나로 압축된다. 가장 풍요한 미국사회에 왜 그렇게 빈곤이 만연해 있는가? John Iceland는 앞서 소개한 빈곤 원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왜 풍요로운 사회에 만연한 빈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John Iceland는 편모가구의 증가가 광범위한 빈곤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전통적인 인식을 반박하는 증거를 제시한다. 그의 요인분해(decomposition) 분석에 따르면 경제적인 요소들이 미국의 높은 빈곤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절대빈곤의 추이에는 경제성장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성장은 1950년대와 1960년대 절대빈곤의 감소를 초래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으며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경제성장의 정체에 따라 절대빈곤이 높은 수준에서 정체하게 된다. 그리고 경제성장이 다시 힘을 얻은 1990년대에는 절대빈곤의 감소가 다시 시작된다.

그러나 빈곤 원인에 대한 이해는 빈곤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다르게 된다. John Iceland가 선호하는 빈곤 개념인 상대적 빈곤의 추이에는 경제적 불평등이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1949년에서 1999년까지 절대빈곤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상대적 빈곤은 1970년대 이전에는 약간 감소했을 뿐이고 그 이후 삼십년 동안은 서서히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로 John Iceland는 절대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빈곤 감소를 이루는 데에서 행해진 경제성장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경제적 불평등의 악화에 우려를 나타내고 이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미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유럽 국가들에 비해 미국에서 빈곤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로는 정부의 빈곤 정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미국에서 시장소득의 불평등도도 높지만, 정부의 소득이전급여 규모가 작아 정부의 복지 정책이 빈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작다. 1990년을 기준으로 8개 선진국가를 비교하였더니 미국에서 연금과 의료보험, 다른 소득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은 11.5%로 나타나 11.2%를 지출한 일본을 제외하고는 제일 하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 산업국가 중에서는 미국만이 전국민을 포괄하는 공적 의료보험이 없다는 점도 잘 알려져 있다.

John Iceland에 따르면 이러한 미국의 낮은 사회지출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미국 사회의 일각에서는 빈곤 감소에 우선순위를 두는가 하면, 다른 일각에서는 복지의존성

감소를 더욱 중시하였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나태함에서 찾는 의견이 강하였고, 때로는 복지프로그램이 개인의 나태함을 촉진하는 것으로 비판을 받았다. 사회과학적 연구들은 복지프로그램들이 근로 감소나 가족구조 변화, 경제성장 저하의 주요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사회적 논란은 지속되었다.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는 데에는 이들 미국 복지 프로그램이 막대한 예산을 소모하고 있다는 대중의 오해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실제로는 대중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빈곤층 대상 현금지원 프로그램에는 매우 작은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뿐이었다. 그리고 소득보장지출의 대부분은 일반 시민들이 널리 지지하는 노인 의료보험이나 공적 연금 등 사회보험 프로그램으로 지출되고 있었다.

미국에서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유럽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인다. 1990년의 한 조사에서 “정부가 모든 시민에게 기본적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진술에 동의한 응답은 미국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20%를 차지했지만, 네덜란드에서는 48%, 서독에서는 51%, 영국에서는 5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John Iceland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미국 시민들 사이에 공동체의식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공동체 의식의 취약성이 높은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용인과 복지국가의 저발전은 초래한 것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John Iceland는 미국에서 왜 유독 사회적 연대의식이 낮고, 정부의 사회지출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지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분석을 수행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미국의 높은 빈곤율과 복지국가의 저발전의 원인을 복지국가에 대한 미국시민의 낮은 지지도로 설명하고 그치는 것은 현상에 대한 설명일 뿐 근본 원인의 규명이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서구 선진국가 중에서 두드러지는 미국의 독특성은 일찍이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라는 개념으로 주목을 받았고, 미국 복지국가의 저발전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봉건제 경험과 반봉건 계급투쟁 경험의 부재, 사회주의 운동과 강력한 노조운동의 부재, 이민국가로서의 특성, 연방제 국가가 지니는 비중앙집권적 성격, 인종적 분열, 유럽대륙과 대양을 끼고 분리되어 있는 지리적 특성 등의 다양한 요인이 미국 복지국가의 후

진성에 기여한 것으로 거론되었다(김태성, 2007).

비교적 최근에 미국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요인 중에서 미국의 인종적 분열과 지리적 특성을 미국 복지국가의 예외성의 주요한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과 같이 인종적으로 이질적인 사회에서는 복지수혜의 주요 대상이 되는 빈곤층이 소수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논리로 복지국가 반대론이 득세하기 쉬워 복지국가 발전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의 재분배 정도의 차이 중 절반 정도는 미국 사회의 인종적 분열로 설명된다(Alesina and Gleaser, 2004).

미국 사회에서 빈곤이 만연한 주요한 이유를 미국 사회의 인종적 이질성에서 찾는 것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사실 John Iceland도 미국 시민의 낮은 공동체 의식의 원인이 인종적 갈등에 있음을 언급하고 있어 유사한 원인을 진단을 하는 듯하다. 그런데 이러한 원인 진단을 받아들인다면 복지국가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그다지 밝다고 할 수 없다. 사회의 인종적 구성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사회에서도 점점 다양화되는 것이 추세이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국가간 이주가 확대되면서 인종적으로 단일한 구성을 유지하던 한국 등 아시아 사회도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인종적인 다양화가 복지국가 발전의 장애로 작용한다면 미국 사회의 높은 수준의 빈곤은 가까운 시기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고, 다른 사회에서도 빈곤의 확산을 목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John Iceland는 책의 말미에서 대중적 지지를 복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의 방향을 모색한다. 그는 다원주의와 기회의 평등을 촉진하고, 모든 사회집단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공유된 사회제도를 세우며, 대상을 특정집단으로 제한하지 않는 보편주의적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것을 미국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의 이러한 대안은 그다지 틀린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아 보이지만, 강한 설득력을 느끼게 하지도 못한다.

미국 복지국가의 저발전이 인종적 분열과 같은 복지정책 외부의 보다 근본적인 사회적, 정치적 특성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 복지국가 발전의 대안이 복지정책의 개혁 차원에서 구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 빈곤문제의 해결과 복지국가 발전 방안은 보다 근본적인 사회적, 정치적 개혁 전략 속에서 찾

아져야 할 것이다. John Iceland가 제시하는 미국 복지국가 발전 전망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그의 연구 범위도 미국 복지국가 발전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오바마 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백인에 의한 흑인 대통령 선출은 인종적 다양성이 사회적 분열을 낳았던 한 시기가 끝나고 다원주의적 공동체라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통합의 미래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아닐까? 변화와 통합을 내세운 오바마 시대가 미국 복지국가의 예외주의에 종지부를 찍는 새로운 역사적 시대의 출발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적시에 제시할 수 있는 사회과학 연구의 발전이 아쉬운 때이다.

참고문헌

- 김태성, 『두 개의 예외적인 복지체제 비교연구: 한국 복지국가 모형의 탐색』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 Alesina, A. and E. L. Glaeser. (2004)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A world of differe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Iceland, J. (2006) 『Poverty in America: A handbook』 Berkeley and Los Angeles, CA: Basic Books.
- Murray, C. (1984) 『Losing Ground: American social policy, 1950-1980』 New York: Basic Books.
- Wilson, W.J. (1987) 『The Truly Disadvantaged: The inner city, the underclass, and public polic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